

해커스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고득점 하프

모의고사

어휘(1 ~ 9번)

1. ‘재산이나 자원 등이 넉넉하고 많다’를 의미하는 고유어는?

- ① 가멸다
- ② 골막하다
- ③ 팔팔하다
- ④ 품푼하다
- ⑤ 박작거리다

2. 밑줄 친 고유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하지 못한 것은?

- 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짜장 문제가 어렵다. → 과연 정말로
- ② 달포 동안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③ 아기의 손톱을 바짝 깎지 않도록 주의해라. →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④ 수업 내용은 짬짬이 복습해 두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
- ⑤ 승진을 하기 위한 그의 엉너리는 정말 못 봐주겠다. →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별쩡하게 서두르는 짓

3. 다음 중 한자어의 사전적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답지(遷至): 한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옴
- ② 적령(適齡): 어떤 표준이나 규정에 알맞은 나이
- ③ 중건(重建): 건물이나 조작체 등을 처음으로 세우거나 만들
- ④ 작고(作故): 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 ⑤ 해태(懈怠):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4.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술(技術)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 ② 여름철에 상온에 보관한 음식은 변질(變質)되기 쉽다.
- ③ 이번 칼럼은 전개(前揭) 칼럼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 ④ 그는 병을 빙자(憑藉)하여 잣은 지각을 용서받고자 하였다.
- ⑤ 문학계의 거장이 타계(他系)하였다는 소식이 종일 보도되었다.

5. <보기>의 ①~⑤에 해당하는 한자로 올바르게 둑인 것은?

<보기>

-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다니 ①경사가 따로 없다.
- 이 길은 ②경사가 가팔라서 눈이 오면 위험하다.
- 경찰인 그녀는 작년에 경장에서 ③경사로 승진하였다.

① ② ③

- ① 慶事 警查 傾斜
② 慶事 傾斜 警查
③ 傾斜 慶事 警查
④ 警查 慶事 傾斜
⑤ 警查 傾斜 慶事

6. ‘세로 2번’에 들어갈 단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말로 적절한 것은?

	1		
2		2	
		3	

〈가로 열쇠〉

-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일
- 드디어 마지막에는 예 ○ ○ ○ 시험에 합격하다.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예 봄○○

〈세로 열쇠〉

- 인기척을 내거나 목청을 가다듬거나 하기 위하여 일부러 기침함. 또는 그렇게 하는 기침

① 더러

② 매양

③ 빨리

④ 자주

⑤ 줄곧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①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보기>

동생이 벽에 ①어린 그림자를 가리켰다.

- ① 눈물 어린 눈에 마음이 약해졌다.
② 그의 모습이 어린 호수를 바라보았다.
③ 아이의 편지에는 애정 어린 표현이 가득했다.
④ 어린 경험으로는 세상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⑤ 비가 오는 동안 산에 어린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8. <보기>의 (가)와 (나)의 관계가 일치해야 할 때, ⑦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가) 갈수록 태산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⑦

- ① 격화소양(隔靴搔癢)
② 고식지계(姑息之計)
③ 누란지위(累卵之危)
④ 어로불변(魚魯不辨)
⑤ 여리박빙(如履薄冰)

9. 다음 관용구의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슴을 펴다’ →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받아들이다.
② ‘산통을 깨다’ → 다 잘되어 가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틀다.
③ ‘바람을 일으키다’ →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④ ‘변죽을 울리다’ → 바로 집어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말을 하다.
⑤ ‘속을 뽑다’ → 일부러 남의 마음을 떠보고 그 속내를 드러나게 하다.

어법(10~18번)

10. <보기 2>를 참고할 때, <보기 1>의 ⑦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⑦ ‘아랫마을[아랜마을]’은 순우리말 ‘아래’와 ‘마을’의 합성어로, 한글 맞춤법 제30항 1-(2)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예이다.

<보기 2>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나는 것
⋮

- ① 뒷머리 ② 멧나물 ③ 예삿말 ④ 텃마당 ⑤ 혼잣말

11.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적절한 것은?

- ① 고양이의 눈에 눈꼽이 가득하다.
- ② 오랜만에 개인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다.
- ③ 곧 졸업한다는 생각에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졌다.
- ④ 오래 걸어 다녀야 해서 짐을 최대한 단출하게 꾸렸다.
- ⑤ 경찰은 야밤도주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 인원을 늘렸다.

12.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 ① 수업∨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 ② 꿈결에 아버지가 다녀간 듯하다.
- ③ 가을바람을 맞고 있으면 상쾌하다.
- ④ 이곳도 더는 화산 폭발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 ⑤ 증강∨현실에 기반한 게임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13.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넬모레 올림픽공원으로 놀러 갈 예정이다.
- ② 그의 코는 콧방울이 둥글고 예쁘게 생겼다.
- ③ 육개장은 파와 고사리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
- ④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지반 검은색 옷을 입었다.
- ⑤ 계획이 계속 파토 나는 바람에 일정 수정만 벌써 열 번째다.

14. 외래어 표기법이 틀린 것은?

- | | | |
|--------|---------|--------|
| ① 핏션 | ② 알코올 | ③ 라이센스 |
| ④ 프러포즈 | ⑤ 쇼트케이크 | |

15. 로마자 표기법이 틀린 것은?

- | | | |
|----------------------|------------------------|----------------------|
| ① 독배길 Dokbae-gil | ② 곡산면 Goksan-myeon | ③ 청량리 Cheongnyang-ri |
| ④ 시흥대로 Siheung-daero | ⑤ 서초3동 Seocho sam-dong | |

16. <보기>의 ⑦~⑩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⑦ 입맛이 없다.
- ⑧ 삯일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 ⑨ 짧은 글을 읽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 그는 “이전 ⑩ 맛없으니 그걸 먹어.”라고 말했다.
- 애호박을 넣고 된장찌개를 ⑪ 끓여서 밥을 먹었다.

- ① ⑦: 비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나 [임마지]로 발음한다.
② ⑧: 자음군 단순화, ‘ㄴ’ 첨가, 비음화의 결과 [상니를]로 발음한다.
③ ⑨: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짤븐]으로 발음한다.
④ ⑩: [마덥쓰니]로 발음하며, 평파열음화는 일어나지만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⑤ ⑪: ‘ㅎ’ 탈락이 일어나 [끄려서]로 발음한다.

17. <보기>의 ⑦~⑩을 품사와 문장 성분에 따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 집을 ⑦ 현 자리에 새집을 지었다.
- ⑧ 다른 집에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 ⑨ 높이 둔 짐을 꺼내어 정리하였다.
- ⑩ 한 학교에 수능 만점자가 여럿 나왔다.
- 그의 무례한 발언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⑪ 일게 했다.

	품사	문장 성분
① ⑦	관형사	관형어
② ⑧	형용사	관형어
③ ⑨	형용사	부사어
④ ⑩	관형사	관형어
⑤ ⑪	동사	부사어

18.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1983년 가드너는 단 하나의 지능이라고 여겨지던 IQ(지능지수)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EQ(감성 지능)라는 개념을 들었다. ② 감성 지능은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구별하여 그 정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③ 최근 들어 EQ의 중요성은 타인과의 관계 구축과 사회 적응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각되는 추세이다. ④ 왜냐하면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모두가 뛰어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따라서 누군가의 정서를 이해시키기 어렵다면 EQ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쓰기(19 ~ 22번)

[19 ~ 22] ‘플라스틱 재활용’을 소재로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제시된 물음에 답하시오.

19.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계획〉

• 주제: 플라스틱 재활용의 실태 제시와 플라스틱 사용 자제 촉구

• 목적: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설득

• 예상 독자: 일반인

• 글의 내용

- 플라스틱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한다. ①
-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현황을 제시한다. ②
- 재활용 용이도를 기준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분류한다. ③
-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시한다. ④
-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⑤

20. 〈글쓰기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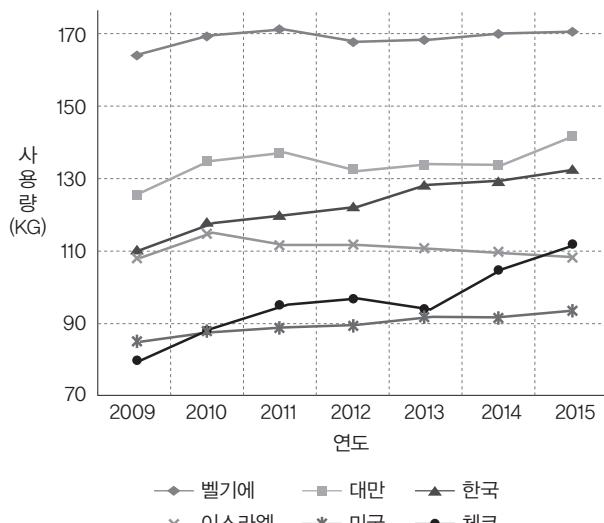
〈글쓰기 자료〉

(가) 논문 자료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뉘는데, 염화 비닐이 주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퍼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식품 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 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프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나) 통계 자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kg)
세계 1위 ~ 6위 국가〉



(다) 보고서 자료

〈재질에 따른 재활용 정도〉

재질	재활용 정도	
	용이함	어려움
플라스틱	PVC	○
	PP	○
	무색 PET	○
	유색 PET	○
철	○	

(라) 신문 기사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 시행된 지 1년만에 일회용 컵 수거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21개 브랜드에서 일회용 컵 수거량이 지난해 7월 206톤에서 올해 4월 58톤으로 약 72%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 같은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난 이유는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문화가 정착된 것이 주된 이유로 관측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의 협약 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 전보다 협약을 체결한 매장 수가 1,222곳 늘어났지만,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했다는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또,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줄이고 일회용 컵의 분리배출·재활용을 쉽게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년 만에 보인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① (가)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해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재활용 측면과 인체 유해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④ (다)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질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짐을 제시한다.
- ⑤ (라)를 활용해 사용자의 노력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제시한다.

21. 위의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글쓰기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글쓰기 개요 >

I. 플라스틱의 종류	①
1. 플라스틱이란?	
2. 플라스틱의 종류	
3.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②
II. 플라스틱 사용 및 재활용 실태	
1. 플라스틱 재질별 재활용 정도	
III. 플라스틱의 기능	③
1. 환경 오염 유발	
2.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침	
3. 질병 유발 가능성	④
IV.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촉구	
1.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의 효용	
3. 민간과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 제안	⑤

① ⑦은 하위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플라스틱의 정의와 종류’로 수정한다.

② ⑨은 I보다 II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므로 II-1로 이동한다.

③ ⑩은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의 문제점’으로 수정한다.

④ ⑪은 III-2와 관련 있는 내용이므로 III-2와 통합하여 제시한다.

⑤ ⑫은 글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친환경 소재의 활용 현황’으로 수정한다.

22. 아래의 글은 <글쓰기 계획>, <글쓰기 자료>, <글쓰기 개요>를 토대로 작성한 글이다. ⑦~⑩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상에서 흔히 쓰는 투명 지퍼백, 필통, 일회용 도시락 용기, 볼펜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바로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란 열이나 압력으로 소성 변형을 시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재질에 따라 PVC, PP, PET 등으로 나누어진다. ⑦ 생수병을 포장 비닐(PP)과 병(PET)으로 나누어 배출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년 ~ 2015년 ⑧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였으며,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만큼 플라스틱이 재활용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철로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재활용하기 용이하지만, 플라스틱은 PP와 무색 PET가 아닌 PVC와 유색 PET 재질은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재질별로 ⑨ 달라지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가공하기 쉽고 값이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첫째, 분리하지 않고 버릴 경우에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버리는 만큼 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1년 정도면 분해가 되는 종이나 섬유 등에 의해 플라스틱은 분해에 100년 정도가 걸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둘째, 플라스틱이 인체에 해롭다는 점이다. PVC에 ⑩ 첨가한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화학적 첨가제 중 하나인 비스페놀A는 발달장애나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벨기에, 대만, 미국 등의 플라스틱 사용량도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질병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 다회용 컵이나 개인 컵(텀블러 등) 사용하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실리콘 등으로 된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기 등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방법이다. 2018년, 환경부의 권고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서 2019년의 일회용 컵 수거량은 전년 대비 약 72%나 감소했다. ⑪ 특정 사업군에서 관측된 결과이긴 하나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로 짧은 기간에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이 검증된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 ① ⑦: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2문단 맨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 ② ⑧: ‘기간’과 ‘동안’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기간’을 삭제한다.
- ③ ⑨: 서술어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앞에 ‘재활용 정도가’를 추가한다.
- ④ ⑩: 관형절의 주어가 ‘프탈레이트는’임을 고려할 때, 피동 표현인 ‘첨가된’으로 수정한다.
- ⑤ ⑪: 글 전체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약화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창안(23 ~ 27번)

23. <보기>의 시각 자료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① 도로 위의 어린이는 감속의 상징입니다.
- ② 도로 위의 어린이는 일시 정지 신호입니다.
- ③ 도로 위의 어린이는 중요한 교통 표지판입니다.
- ④ 도로 위의 어린이는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합니다.
- ⑤ 도로 위의 어린이는 어디로 훨지 모르는 공입니다.

24. <보기>를 활용한 공익광고 문구를 <조건>에 맞게 창작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루기 쉽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조건>

- '준중'의 의미가 드러나게 할 것
- 비유법을 사용할 것
-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할 것

- ① 다루기 쉬운 너, 다루기 어려운 나?
- ② 다른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면 나도 물건이 되지 않을까요?
- ③ 호출 버튼을 누르듯 빗자루를 든 손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 ④ 로봇 청소기는 기계이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 ⑤ 열 번의 배려를 원하면서 한 번의 배려도 해 본 적 없지 않나요?

25. <보기>의 삼행시를 <조건>에 맞게 창작한 것은?

< 보 기 >

색 _____
연 _____
필 _____

< 조 건 >

- 개인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일 것
- 가정법을 사용할 것
- 궁정문으로 서술할 것

- ① 색깔이 다양한 무지개도
연속되어서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니
필요할 때는 다른 색을 더 찾아보자.
- ③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연연할 필요는 없으니 너만의 매력으로
필독서처럼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자.
- ⑤ 색인에서 책속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듯이
연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 연결하면
필연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다.

- ②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연필로 그릴 때와 또 다른 느낌,
필기구도 이런데 너라고 그렇지 않을까?
- ④ 색색의 연을 푸른 하늘에 띄워 보았다면,
연날리기의 풍경 속에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꼈다면,
필시 우리도 그처럼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을 것이다.

26. <보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건>에 맞는 제목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나라 국민, 재외 동포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7천7백30여만 명이며, 이는 전 세계 모든 언어 중 14위에 해당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앞세운 한국기업의 세계화, 한류 파급효과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접수자 수는 37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세종학당 신규지정 공모에는 역대 최다인 50개국 101개 기관이 신청했다.
이렇듯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어의 인기를 지속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물적 지원을 확대하며, 정부 주도 언어 사업에 대한 대외의 부정적인 시선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 조 건 >

- <보기>의 중심 내용을 포함할 것
- 대구법을 사용할 것

- ① 문 두드리는 외국인, 문 닫는 한국인
② 인기 치솟는 한국어, 준비 부족한 한국 정부
③ 문제 있는 한국어 교육, 자리 없는 한국어 학당
④ 한국어 교육, 이제는 정상의 자리를 공고화할 때
⑤ 똑똑 떨어지는 한국어 교육 전문성, 똑똑 떨어지는 한국어의 위상

27. '식물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통해 '공부의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을 유추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구성 요소	특징	유추한 내용
① 뿌리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② 줄기	뿌리로 흡수한 양분을 다른 부분으로 나름	다른 사람의 배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잎	식물이 호흡할 수 있게 함	삶의 활력소가 되어줌
④ 꽃	좋은 향기가 나며,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힘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음
⑤ 열매	새싹을 나게 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음	공부로 얻은 지식은 다른 공부의 자원이 됨

읽기(28~45번)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다는 뿔뿔이
달어날랴고 했다.

이 앤쓴 ② 해도(海圖)에
손을 싯고 떼었다.

⑦ 푸른 도마뱀 떼같이
재재발렸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⑧ 회동그란히 바쳐 들었다!
지구(地球)는 연(蓮)잎인 양 움으라들고…… 퍼고……

- 정지용, 「바다 2」

⑨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부치고
⑩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시쳤다.

2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비교되는 대상 간의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직유법과 활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대상을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파도의 움직임이 매우 빠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 ② ㉡: 파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물거품이 하얗게 일었다는 의미이다.
- ③ ㉢: 파도가 다시 바다 쪽으로 흘러가면서 해안의 모습이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 ④ ㉣: 화자가 바라본 해안에 파도가 여러 번 지나갔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 ⑤ ㉤: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를 비유한 표현으로 지구에 바다를 빗대고 있다.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옹오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 벼를 베지 않는다. 남들은 다들 겉어들이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지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幾至死境)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판이니 진시(趁時)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흙자식 모양으로 알뜰이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賭地)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셨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없기 짹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A] 가뜩이나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그나마 흥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은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배라 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벼를 걷었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더면 좋을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였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시니만치 어지간히 속이 뿐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하지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 마는 한번 벼룻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작인(作人)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깝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맷 말가량은 될는지!

30. 윗글에 등장하는 ‘옹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수철이 되었지만 벼를 수확하지 않고 있다.
- ② 수확 후에 일어났던 일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 ③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을 살 돈도 없는 가난한 형편이다.
- ④ 형 ‘응칠’과 달리 지주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
- ⑤ 작년까지는 벼를 키우고 수확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31. 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응오의 저항을 의미한다.
- ② 응오와 응칠 형제가 처한 현실과 살아온 삶을 상징한다.
- ③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응오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 ④ 응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않고 있는 일을 의미한다.
- ⑤ 응오와 응칠 형제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32. [A]에 나타난 ‘응오’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① 고육지책(苦肉之策) | ② 남부여대(男負女戴) |
| ③ 상루하습(上漏下濕)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 ⑤ 풍전등화(風前燈火) | |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⑦ 생산학파는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 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자로부터 도시로 끌어 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는지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근대 도시는 어떠한 쾌락과 환상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인 듯하다.

이에 대하여 ⑧ 소비학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세계를 상실한 사물로 전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생산학파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콜린 캠벨은 금욕주의 정신을 지닌 청교도들조차 소비 양식에서 자기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욕망과 실제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대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생산학파와 달리 캠벨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쾌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 복돋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의 입장은 아우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이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주목했던 발터 벤야민은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재발견되었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등 서로 다른 것들이 병치되고 뒤섞이며 빠르게 흘러간다. 환상을 자아내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로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여 만든 상품 거리인 아케이드는 안과 밖,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체험을 가져다주었다. 벤야민은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인에게 충격을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일깨워진다고 말했다.

벤야민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기한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벤야민에게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다. 영화는 조각난 필름들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 내는 기계의 리듬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참여하는 스태프는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분업화로 인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33.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화의 현실 반영법
 - 근대 도시와 영화의 특성에 관하여
- ② 근대 도시의 양면성
 - 소비학파와 생산학파의 논쟁에 관하여
- ③ 근대인의 삶의 양식
 - 영화를 통해 본 벤야민의 근대 도시에 관하여
- ④ 근대 도시의 삶의 방식
 - 벤야민이 연구한 근대 도시에 관하여
- ⑤ 영화를 보는 세 가지 관점
 - 소비학파, 생산학파, 벤야민의 관점에 관하여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철과 유리로 공간을 명확히 나눈 아케이드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 ② 영화 제작 산업은 개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 분업화된 노동 형식을 취한다.
- ③ 사람들이 바라보는 풍경에 연속성이 부여된 것은 철도의 발달에 기인한다.
- ④ 삶의 양식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학문적 우위를 점한 학파는 생산학파였다.
- 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보는 벤야민의 관점은 소비학파보다 생산학파에 가깝다.

35. ㉠과 ㉡의 특징을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노동 양식에 관심	소비 양식에 관심
② 기계화된 근대 도시	환상적인 근대 도시
③ 획일화된 삶의 양식	다채로운 삶의 양식
④ 억제된 개인의 욕망	충족된 개인의 욕망
⑤ 노동력의 이동에 주목	미래에 대한 기대에 주목

[36~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의를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뜻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⑦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봄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3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베카리아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였다.
- ②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해타산적인 면보다 이타적인 면에 주목한 사상이다.
- ③ 베카리아는 형벌을 통해 범죄 발생 이전의 사회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형벌 집행 기준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로 정해졌다면 이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 ⑤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서 형벌로 범죄자가 입은 손실을 뺀 값이 음수라면 이는 효과적인 형벌이다.

37. ⑦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
- ② 개인이 형벌에 대한 공포를 많이 인식할수록 형벌의 효과는 크다는 것
- ③ 형벌의 강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정도에 기준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
- ④ 형법에 입각한 처벌보다 개인의 진실한 행동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것
- ⑤ 형벌 제도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름을 시사한다.

38.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허권의 정의와 종류
- ② 디지털세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 ③ 지식 재산 기반 산업의 발달 과정
- ④ ICT 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는 방법
- ⑤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과 ICT 산업과의 관계

3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국가는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10개 보유하고 있으며, B 국가에는 A 국가에 본사가 있는 자회사가 20개 이상 설립되어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국가의 소득 수준은 B 국가보다 3단계 높으며, B 국가의 소득 수준은 작년까지 가장 하위 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 ① B 국가보다 A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할 확률이 높다.
- ② A 국가보다 B 국가에서 ICT 기업의 지식 창출이 자주 일어날 확률이 높다.
- ③ 지식 재산 보호의 접근 비용이 유인 비용보다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A 국가일 것이다.
- ④ B 국가의 국민이 A 국가에서 ICT 기업의 지식 재산을 침해했다면 자국에서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 ⑤ 한 ICT 기업의 로열티가 A 국가에서 B 국가로 지불되었다면 법인세율은 A 국가가 B 국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 ▣ 질병관리본부는 제13차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 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 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 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에서 인체 감염이 가능하다.
 - * 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승이열말라리아
 -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 지역(인천, 경기 · 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 ~ 10 월에 환자의 90%가 발생(2019년 기준)*한다.
 - * 2019년 국내 발생: 경기 북부 314명(64.7%), 인천 98명(20.2%), 강원 북부 25명(5.2%) 등
 - 신속한 진단 · 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 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内外로 보고되고 있다.
-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 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말라리아 퇴치 실행 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 · 홍보 및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 기준을 체중당 용량(mg/kg)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 말라리아 치료제(프리마퀸) 용량: 하루 1정 → 체중당(mg/kg)으로 변경
-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 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 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 모기 서식처 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 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말라리아 예방 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 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전 의사와 상담 후 지역에 따라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다발생 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

4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말라리아에 취약한 위험지역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 ② 국내와 국외에서 주로 보고되는 말라리아의 종류는 다르다.
- ③ 말라리아는 여름철(5 ~ 8월)에 기승을 부리고, 9월 이후로는 감소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말라리아 환자의 과반수는 경기 북부에서 발생하였다.
- ⑤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삼일열원충에 감염된 모기를 찾는 것은 말라리아 감염 예방 정책에 속한다.

41.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프리카 여행 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다면 말라리아를 의심해 볼 수 있겠군.
- ②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의 집중 방역 지역이겠군.
- ③ 체중이 각각 50kg, 70kg인 말라리아 환자의 일일 치료제 복용량은 한 알로 동일하겠군.
- ④ 경남 지역 거주자가 강원 북부를 여행할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겠군.
- ⑤ 7월에 야외 캠핑을 하면서 텐트 밖에서 밤을 새워 논다면 긴팔과 긴바지를 챙겨 입는 것이 좋겠군.

42. 윗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라리아 치료제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인간에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③ 말라리아에 감염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④ RDT를 통해 말라리아 검사를 한다면 검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가?
- ⑤ 말라리아 유행철에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구비하면 좋을 물건은 무엇인가?

4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지호가 가계부에 기록한 버스 요금으로 올바른 것은?

시내버스 요금표							
(단위: 원)							
구분		교통 카드	현금	구분		교통 카드	현금
일반형 버스	일반	1,450	1,500	직행 좌석형 버스	일반	2,800	2,900
	청소년	1,010	1,100		청소년	1,960	2,000
	어린이	730	800		어린이	1,960	2,000
좌석형 버스	일반	2,450	2,500	순환 버스	일반	3,050	3,100
	청소년	1,820	1,900		청소년	2,140	2,200
	어린이	1,640	1,700		어린이	2,140	2,200

* 조조할인

- 첫차~오전 6시 30분까지 시내버스를 교통 카드로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조조할인 적용(단, 일반 요금에만 적용됨)
- 할인액: 일반형 버스 200원, 좌석형 버스 400원, 직행 좌석형 버스 400원, 순환 버스 450원

* 어린이 요금은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 청소년 요금은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 일반 요금은 만 19세 이상에 적용됨

<보기 2>

지호와 수현이는 22번째 생일 기념으로 12살, 17살인 지호의 동생과 24살인 수현이의 형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다. 이번 여행에 쓴 돈은 지호가 모두 가계부에 기록하기로 하였으며, 집에서 각자 출발해 8시까지 놀이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지호와 지호의 동생들은 6시 28분에 놀이공원으로 향하는 좌석형 버스를 탄 후 교통 카드로 요금을 지불했으며, 수현이는 7시에 순환 버스를 현금으로, 수현이의 형은 7시 30분에 일반형 버스를 교통카드로 이용했다. 다섯 사람의 집에서 놀이공원까지는 이동 거리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9,410

② 10,010

③ 10,060

④ 10,410

⑤ 10,460

[44~45]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성인)						(단위: %)
구분		일이 바빠서 이용할 시간이 없다	책을 읽지 않는다	집에서 멀다	읽고 싶은 책은 사서 읽는다	도서관에 읽을 만한 책이 없다
성별	남성	44.9	34.3	7.8	5.8	2.4
	여성	34.5	41.5	11.2	4.6	3
연령별	19~29세	49	22.4	9.5	9.4	3
	30~39세	60.3	20	7.1	6.9	1.8
	40~49세	51.5	28.6	7.5	5.9	2.1
	50~59세	40.6	42.4	6.1	4.3	2
	60대 이상	18.9	54.8	14.2	3	3.8

44. 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별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가 달라진다.
- ②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책을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 ③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책을 읽지 않아 도서관에 가지 않는 비율도 증가한다.
- ④ 도서관과의 거리 문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 ⑤ 50세 미만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다.

45. 위 통계자료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서 구입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린다.
- ② 도서관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개설한다.
- ③ 온라인 도서 대출과 대출 도서 배달 서비스를 기획한다.
- ④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대출 가능한 최대 권수를 늘린다.
- ⑤ 남성에게는 도서관 셔틀버스를, 여성에게는 희망 도서 구매 정책을 홍보한다.

46. <보기>의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깍대기를 넣고 뷔음밥을 해 먹었다.
- ② 뜨락에 심은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졌다.
- 오후에는 공원에서 ③ 꼬리연을 날리고 놀았다.
- ④ 마실을 나갔다 돌아오시는 할머니께 인사했다.
- 길에서 ⑤ 연방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다 까졌다.

① ①: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등의 양념과 함께 버무려 만든 김치'라는 의미의 방언이다.

② ②: '집 안의 앞뒤나 좌우로 가까이 팔려 있는 빈터'라는 의미의 표준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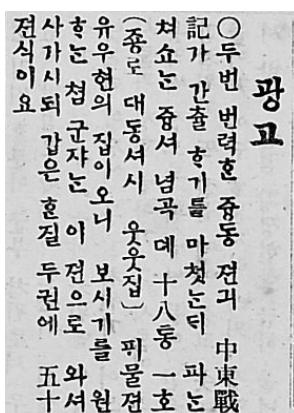
③ ③: '긴 꼬리를 단 연'이라는 의미의 표준어이다.

④ ④: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라는 의미의 방언이다.

⑤ ⑤: '연속해서 자꾸'라는 의미의 표준어이다.

47. <보기>의 근대 신문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찾을 수 있다.

② 구개음화가 예외 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③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를 찾을 수 있다.

④ 표기법으로 끊어 적기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중 모음들을 찾을 수 있다.

48. <보기>의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끓인 지 오래된 라면이 ① 붙다.
- 초록색 실과 빨간색 실을 ② 잇다.
-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③ 잠그다.
-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편의점에 ④ 들르다.
- 크레파스를 가지고 논 동생의 손이 ⑤ 까맣다.

- ① ⑦은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② ⑨은 ‘ㅅ’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③ ⑩은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④ ⑪은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⑤ ⑫은 ‘ㅎ’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49. 우리말을 다듬어 표현한 사례로 올바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 |
|----------------|----------------|
| ⑦ 가불→외상 | ⑨ 감안→생각 |
| ⑩ 위트→재미 | ⑪ 멀티탭→모둠전원꽂이 |
| ⑫ 인저리 타임→휴식 시간 | ⑫ 웰컴 키트→환영 꾸러미 |

- ① ⑦, ⑩, ⑫
② ⑨, ⑪, ⑭
③ ⑦, ⑨, ⑪, ⑭
④ ⑩, ⑪, ⑫, ⑭^⑮
⑤ ⑨, ⑪, ⑫, ⑭, ⑯

5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보기>

일제강점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문학이 창작되었다. 시 문학을 예로 든다면, 김기립의 「바다와 나비」 같은 모더니즘 시, 김소월의 「진달래 꽃」 같이 민요적 율격을 계승한 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같이 조국을 빼앗긴 슬픔과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노래한 시 등이 창작되었다.

- ① 백석, 「여승」
② 이육사, 「광야」
③ 윤동주, 「서시」
④ 정지용, 「인동차」
⑤ 김영랑, 「독을 차고」

본 자료의 저작권은 해커스자격증에 있으며 무단 복제·전송·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커스자격증

KBS한국어능력시험

고득점 하프 모의고사

KBS한국어능력시험 단기 고득점 완성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해커스KBS한국어](#) 를 검색하세요!